벤투호, 오늘 호주전서 '손톱 작전' 쓸까

손흥민 투톱 유력… 최전방 스트라이커
4-4-2 전술 가동… 풍부한 2선 공격 자원

6월 축구 국가대표팀 평가전 2연전을 앞둔 벤투호가 '캡틴' 손흥민(토트넘)을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가동한 '손톱 카드'를 또다시 가동할 전망이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의 태극전사들은 호주와 평가전(7일 오후 8시·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을 하루 앞둔 6일 오전 파주 NFC(축구대표팀트레이닝센터)에서 25명의 선수가 모두 참가한 가운데 비공개 훈련으로 조직력을 끌어올렸다.

소속팀 일정으로 3일 시작된 소집훈련을 함께하지 못했던 손흥민(토트넘)과 이승우(엘라스 베로나)가 4일 합류하면서 벤투호는 A매치 2연전을 앞두고 완전체가 됐다.

25명의 선수 모두 부상 없이 정상적으로 훈련하면서 벤투 감독은 자체 청백전을 통한 전술 훈련에 집중할 수 있었다.

벤투 감독은 이날 훈련에서 전술훈련과 함께 프리킥과 코너킥에 대비한 세트피스 가다듬기에도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호주전을 맞아 벤투호는 4-4-2 전술을 가동할 전망이다.

손흥민의 쓰임새는 단연 팬들의 관심거리다.

벤투 감독은 지난 3월 A매치 때 손흥민을 투톱 스트라이커로 활용해 볼리비아와 콜롬비아를 잇달아 꺾었다.

이에 따라 벤투 감독은 손흥민과 함께 스트라이커 자원인 황의조(감바 오사카),이정협(부산), 황희찬(잘츠부르크) 등과 짝을 맞추는 투톱 전술을 가동할 전망이다.

벤투 감독이 손흥민을 3월 A매치에 이어 6월 A매치에도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가동할 수 있는 원동력은 풍부한 2선 자원 때문이다.

김보경(울산)과 나상호(FC도쿄), 백승호(지로나), 이승우, 손준호(전북), 이재성(홀슈타인 킬), 이진현(포항), 황인범(밴쿠버 화이트캡스) 등 좌우 측면과 공격형미드필더로 공격 자원이 풍부해 손흥민을 2선 공격수로 활용할 이유가 없어서다.

손흥민은 3월 26일 콜롬비아전에서 황의조와 함께 투톱 스트라이커로 나서 벤투감독 지휘 아래 9경기 만에 첫 득점에 성공하며 '골가뭄' 해갈에 성공했다.

이 때문에 벤투 감독은 대표팀에서 손흥민에게 가장 잘 맞는 '옷'이 최전방 스트라이커라고 판단해 6월 A매치 2연전에서도 '손톱 작전'을 이어나갈 전망이다. 연합뉴스

9회말 이형종 동점포·상대 끝내기 폭투

LG 트윈스, kt wiz를 8-7로 누르고 주중 3연전 싹쓸이

LG 트윈스가 9회말 터진 이형종의 극적인 동점포와 상대 투수 전유수의 끝내기 폭투로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다.

LG는 6일 서울시 잠실구장에서 열린 2019 신한은행 마이카 KBO리그 홈경기에서 kt wiz를 8-7로 누르고 주중 3연전을 싹쓸이 했다.

9회 초 실점하며 6-7로 뒤진 채 9회 말을 맞은 LG는 선두타자 이형종의 솔로포로 8-8 동점을 만들었다.

이형종은 kt 마무리 정성곤의 시속 126㎞ 포크볼을 받아쳐 좌중간 담을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후속타자 김민성이 좌전 안타로 분위기를 이어갔고, 전민수는 희생번트로 김민성을 2루에 보냈다.

kt는 1사 2루에서 오지환을 고의사구로 거르고, 이천웅과의 승부를 택했다. 이천웅이 1루 땅볼로 물러나면서 상황은 2사 1, 3루로 변했다.

이때 kt의 치명적인 실책이 나왔다. kt 우완 전유수가 윤진호 타석에서 포수 미트 아래쪽으로 투구했고, kt 포수 장성우는 공을 잡지 못했다.

LG 3루주자 김민성이 홈을 밟으면서 경기는 끝났다.

LG는 8회 말에 반격했다. 대타 전민수가 좌익수 쪽 2루타를 치고 나갔다. 오지환이 삼진으로 물러났지만, 이천웅과 대타 김용의가 연속해서 볼넷을 얻어 1사 만루 기회를 만들었다. LG 주장 김현수는 kt 마무리 정성곤을 공략해 좌중간을 가르는 싹쓸이 3타점 2루타를 쳐 6-6 동점을 만들었다.

kt는 9회 초 송민섭의 3루타와 조용호의 좌전 적시타로 다시 7-6으로 리드했다. 그러나 LG는 9회 말 이형종의 홈런으로 승부를 되돌리더니, 상대 실수로 결승점까지 뽑았다. 연합뉴스

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kt와 LG의 경기. 9회말 2사 1,3루 7대7 동점 상황에서 LG 3루주자 김민성이 kt 투수 전유수의 폭투로 홈인하며 동료들의 축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FIFA U-20 월드컵 '4강 신화' 재현 시동

오는 9일 '아프리카의 복병' 세네갈과 8강전
11일 동안 4경기 치러… '체력 회복' 관건

이제 한고비만 더 넘으면 '멕시코 4강 신화'를 재현하는 한국축구의 미래들에 체력 회복이 최우선 과제가 됐다.

정정용 감독이 이끄는 20세 이하(U-20) 대표팀은 9일 오전 3시 30분(이하 한국시간) 폴란드 비엘스코-비아와에서 세네갈과 2019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 8강전을 치른다.

5일 루블린에서 일본과 16강전을 벌여 1-0으로 이긴 대표팀은 세네갈만 넘어서면 36년 만이자 역대 두 번째로 대회 4강에 오른다. 4강은 1983년 멕시코 대회 때 달성한 우리나라의 이 대회 최고 성적이다.

포르투갈, 아르헨티나 등이 속한 이른바 '죽음의 조'에서 2승 1패, 조 2위로 당당히 16강에 오른 대표팀은 숙적 일본마저 꺾고 이번 대회에 참가한 아시아 4개 국가 중 유일하게 8강에 올랐다.

포르투갈과의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0-1로 패했을 뿐, 이후 남아프리카공화국(1-0 승)을 시작으로 아르헨티나(2-1 승), 일본을 상대로 3연승을 거둬 어린 태극전사들은 자신감에 넘친다.

하지만 연거푸 격전을 치른 선수들의 체력은 걱정이다. 대표팀은 지난달 25일 포르투갈전을 시작으로 현지시간으로 11일 동안 4경기를 치렀다. 그러고는 사흘을 쉰 뒤 세네갈과 맞붙는다.

게다가 일본전 이튿날인 5일은 루블린에서 약 400㎞ 떨어진 비엘스코-비아와로 이동하느라 하루를 다 썼다.

현지시간 오전 11시 버스로 루블린 숙소를 떠난 대표팀은 크라쿠프에서 식사를 해결하고 잠시 휴식하는 등 9시간을 이동해 오후 8시쯤에 비엘스코-비아와 숙소에 여장을 풀었다.

이에 반해 세네갈은 우리보다 하루 먼저 우치에서 나이지리아와 16강전(2-1 승)을 치르고 약 260㎞를 이동해 비엘스코-비아와에 도착했다.

물론 대표팀은 16강전에서도 한국보다 이틀을 더 쉰 일본을 맞아 후반에 승부수를 띄워 값진 승리를 일궜다.

하지만 점점 지쳐가는 선수들에게 하루 치의 휴식은 크게 작용할 수 있다.

골키퍼 이광연(강원)뿐만 아니라 중앙수비수 이재익(강원), 왼쪽 측면 수비수 최준(연세대)은 이번 대회 4경기를 모두 풀타임 뛰었다.

에이스 이강인(발렌시아)도 3경기에서 풀타임 출전하는 등 353분 동안 그라운드를 누볐다.

포르투갈과의 이번 대회 첫 경기를 치렀던 비엘스코-비아와로 돌아온 대표팀은 이틀 동안 회복을 하면서 세네갈을 누를 전술도 다듬어야 한다. 연합뉴스

마사회 제주본부장기 전도유도대회

9일 제주도유도회관… 400여명 출전 도내 최대 규모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 제주가 9일 제주유도회관에서 제25회 한국마사회 제주본부장기 전도유도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렛츠런파크 제주가 주최하고 제주도유도회가 주관하며 선수단을 비롯해 유도 관계자 400여명이 참가하는 명실상부한 도내 최대 규모의 유도대회이다.

대회는 유치부, 초등부, 중학부, 고등부 학생 및 일반부, 스포츠 클럽부 등으로 나뉜다. 선수 300여명이 대거 출전해 토너먼트(일부 리그전) 경기에 임한다.

윤각현 렛츠런파크 제주본부장은 "대회 개최를 위해 훈련 지원금과 유도대회 운영기부금을 지원하고 있다"라며 "이 대회는 제주지역 우수 유망주 발굴을 위한 자리로써 해를 거듭할수록 제주도의 유도 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